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6 비전2000운동

오늘 I·II·III부 예배 후 **교구별 노방전도**

오늘 I·II·III부 예배를 드린 뒤 전 교인은 교구별로 나누어 교회 근방을 대상으로 노방전도에 나서게 된다.

'96 비전2000운동은 교회창립일 전 50일간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자는 운동으로 오늘은 예배 후 각 교구별로 모여 노방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전도대상지역은 교회 인근으로 영동시장에서 삼정호텔부근까지 편의상 모두 5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이 5개 지역을 우리 교회 12교구를 5개 전도단으로 나누어 각기 맡아 노방전도에 나서게 된다. 각 교구별 담당구역과 모이는 장소는 별표와 같다.

각 교구에 소속된 교인들은 예배 후 전도대별로 먼저 교회 앞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발대 기도를 드린 후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각각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도방법은 전도지를 활용하거나 이밖에 자자의 방법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면 된다.

구분	교구	전도대상 지역	집결지
제 1전도대	1, 2교구	영동시장	교회정문 옆 주차장
제 2전도대	3, 4교구	교회 뒷편, 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보람은행 앞
제 3전도대	5, 6교구	제일은행 뒷편 ~ 논현국민학교 주변	교회 정문 앞
제 4전도대	7, 8, 9교구	제일생명 ~ 강남역	교회 앞 (좌측)
제 5전도대	10, 11, 12교구	노보텔, 삼정호텔 부근	교회 앞 (우측)



잃은양 찾기운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전2000운동기간 중 전도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매주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성도에게는 교회 배지가 선사되며 3명을 전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50일간 전도를 가장 많이한 전도왕과 1, 2, 3등을 차지한 성도에게는 승전감사예배를 드리는 날에 큰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다.

금주의 '96비전 2000운동

- ▶ I·II·III부 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
- ▶ 찬양예배 후: 전교인 합심기도회
- ▶ 매일 오전 5시 30분: 비전2000 새벽기도회
- ▶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다니엘 기도
- ▶ 매주 금요일: 비전2000 금요기도회
- ▶ 매일: 연속기도회
- ▶ 각 모임후: 노방전도, 축호전도, 잃은 양 찾기

23, 24일 **바자**

'모임과 나눔' 접수 한창

자매교회 농수산물은 미리 주문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가 10월 23일(수)과 24일(목)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교회설립 5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바자는 농어촌 자매교회의 농수산물과 각종 기증품, 위탁판매품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농어촌 자매교회에서는 현지에서 재배한 농수산물을 내놓는다. 특히 이 농수산물은 성격상 미리 주문을 받게 되는데 주문한 양만큼 현지에서 직송하게 된다. 이 중에는 경북 영양 고추, 충북 괴산 오미자와 전남 완도의 건미역, 마른멸치, 구운 김, 멸치액젓 등 다양한 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자매교회 농수산물 구입에 관한 문의는 탁아부 김정란 집사(☎ 032-613-3642)에게 하면 된다.

이번 바자를 주관하는 남녀전도회협의회에서는 특별히 그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벌여온 '모임과 나눔의 장' 형식의 중고품 매장이 가장 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임과 나눔의 장'은 각 가정에 있는 물건 중에 활용가능하나 쓰이지 않는 물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하게 쓰일 물건을 기증하여 바자 기간에 판매하는 것이다. 가구나 냉장고, 자동차 등 부피가 큰 물품은 명세만 제출하면 구입을 원하는 성도와 직접 연결하여 판매 또는 교환토록 할 예정이다. 기증품은 바자 당일인 23일(수)까지 사무국(☎ 517-7651~5)에서 접수한다.

또한 남녀전도회협의회에서는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의 생산물 및 취급물품의 기증과 판매도 환영하며 특정업체와 협력하여 물품

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번 바자에 관련 업체들과의 협의에도 계속적으로 힘써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강조하고 있다.

최양순 전도사 부임

유치부 지도



최양순전도사가 유치부 지도교역자로 청빙되었다.

최 전도사는 1965년생으로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하였다. 무학교회와 인천 주안교회에서 유치부를 지도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당회는 유치부 부장 이재권 장로가 교통사고로 공석 중이므로 김영준 집사(괴택장로)를 부장대행으로 임명했다.

지상
설교

교회의 특성 (II)- 거룩

이종운 목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4 - 17)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장이다. 교회설립기념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교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벧전2:9).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히12:14).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드러나고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자연히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17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거룩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도박이나 음주 같은 것을 금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때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의 거룩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과 율법주의적인 외식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righteousness)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의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3). 자기 의를 내세워 의로운 생활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당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룩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따로 구별하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구별된 백성들이 모이는 곳,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롬 1:7, 고전 1:2, 고후 1:1, 엡 1:1, 빌 1:1).

우리는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을 받되 진리로 구별을 받아야지 도덕적인 생활과 윤리적인 생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19절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더 의롭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구별시켜 달라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2. 세상적 교회는 어떠한가

세상에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소위 세상적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들이라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계속적인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옛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떠내려 갔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갖은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상식과 지혜와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교회의 지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성경적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교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속신학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자기 상황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인데 세속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이란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된 관심과 행사계획 등이 잘못될 때에 교회의 거룩성은 큰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무기 외에 다른 세속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화되고, 교회 안에서 물질이 세력화된다면 교회의 거룩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서는 않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될 수 있으며 실제로 거룩함에도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이 말씀으로 항상 훈련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속교회를 다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적 신학과 말씀 계시를 따라 거룩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 외을 말씀: 요한복음 17장
- 예선: 11월 3일
- 결선: 11월 10일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겉옷만이라도 지혜롭게

탁경준 (집사, 5교구)

제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3년 전의 일입니다. 기도실업인회(CBMC)에 참여하였다가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았습니다. 그후로는 점차 성경말씀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친구, 군대친구, 사업상 만나는 많은 친구들에게 제가 발견한 많은 것 중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등산하면서, 운동하면서 때로는 식사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저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심정이 되어 그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몇년 전만 해도 혹 전도를 받게 되면 왜 그 리도 지독하게 반격하고 배척하

며 비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기도드립니다. “전도하여 복음을 확실히 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전략을 수립합니다. 제가 전도를 받던 때를 기억해보기도 하며 전도할 때의 분위기, 태도, 말씀, 진실성, 행동 등을 분석하고 문제되는 여러 요소들을 점검하여 공격해오는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을 우리교회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분은 매우 애연가였기에 주일에배가 끝나면 담배 태울 장소를 찾느라 온 동네를 헤매었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져 어

려사람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에 가서 담배를 태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중 폐암수술을 받게 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애연가였던 그분이 “나도 이제 담배 끊었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단번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성경말씀대로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주어야 하지만 연약한 저는 그 자리에서 속옷은 못벗어주더라도 지혜로 벗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김숙자 (집사, 1교구)

주님 오시는 날
키 작은 새끼오는
자신의 죄가 부끄럽고 두려워
뽕나무 위에 숨어서
주님 뵈었고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어느 곳에 몸을 숨기우고
주님 뵈을까
죄로 인해 상처투성이인
영혼과 육신

무너져버린 성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당구는 나무토막
수많은 발걸음이
스쳐지나갔지만
누가 불을 당겨 숯덩이 될까
주님 오시는 날
까만 숯덩이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 피어나는...
하얀 꽃잎되어 오시는
주님 발걸음 반겨 드리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스데반회 기도회에서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서문석 (집사, 8교구)

지난 3일 밤 의정부에 있는 동신교회수양관에서 안수집사 모임인 스데반회의 부부 기도회가 열렸다.

먼저 예배와 30여 분간 이어진 뜨거운 찬송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한자리에 모인 서로에게 활짝 열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날 기도회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제일 첫 순서는 자신의 이름만 적은 종이를 돌리는 것이었는데 그 종이에에는 칭찬, 고칠 점, 당부하는 말... 등 다른 사람이 본 자신의 모습이 가득 적혀져서 돌아왔다. 우리를 각자는 그것을 놓고 감사, 회개, 결심, 간구 등 뜨거운 기도를 하였다.

목사님이 준비해 오신 10가지

기도제목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합심기도를 하였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여느 때보다도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날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니 급기야 부부기도시간은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동그렇게 앉아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제목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순서가 마지막이었는데 참석한 사람이 모두 그렇게 돌아가며 기도하다보니 실 틈도 없이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 이번 비전2000운동 기간동안 우리 교회 안에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96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김숙자	윤연순 최옥기 한남옥 정혜진 박화서 이금자 이경자 조진상 최옥자	이학주	유호철 조홍제 박주영 장운경 박재동 황숙경 박정현	이남복	남연희 오나서 이홍성 이창현 김순자 강재준 이병남
정연택	임용우 최애슬 이필너 정진희 권영환 박소영 진인재 박종완 박문규 김애경	김은숙	김미희 윤이순 김경숙 김용필 김혜숙 김제만 김화순	탁경준	고광모 이상동 이진원 전무광 박영진 박래선 장석기 강석본 윤영기 이윤철
김연옥	손지아 김보현 김재경 민강식 김삼석 김 석 원은주 조계원	김금준	최동목 심성섭 전해경 한영태 김규훈 이상곤 강경림 안무홍 천정규 이규택	이정자	이인숙 이정숙 권오숙 이동선 손남일 주홍환 전용일 구호환 구선환 이미숙
정병무	정재은 정 현	최차순	최오학 이계순 최대순 김나미 김정숙 전해운 김춘자	김종자	박경옥 이말숙 고인순 박준형 이복자
고후덕	최환우 최 원 최상훈 고절선 강순주 고석구 최상아 고석남 고석로 고정자	이영숙	박기양 김동국 김커현 정성준 김광현 김현수 원용화 김삼자 이춘자	이신일	이경호 이경희 이선진 박종순 백옥순 박인성 박종철 정기숙 박종섭 민경혜
김경아	박승도 박승희 오정미 오정아 조상명 조용제 조홍제 조은순 김재중 나점균	이용자	김용수 이순옥 박정진 박규엽 김영심 김극수 김교수 최창준 이점숙 송영숙	김현주	김대용 윤근옥 김임조 김필순 김희현 김희진 이상근 김태균 이기성 곽영심
조삼원	조규설 신길순 조민현 조기현 조소현 송석호 송석창 송경규	김병숙	김명중 박용식 이정호 강명식	무 명	이일흠 이한룡 이광룡 무 명
이학주	최옥란 김재진 남규원	이남복	김옥순 송만희 장만식	무 명	남형일 남형원 전용섭

한달 남은 수능시험 기도로 지원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세계의 지도자인 수험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학업에 정진하며 그간 쌓아온 실력을 잘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 지도해 줄 때이다. 고등부에서는 27일(주일)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 3학생을 위하여 기도회를 갖는다.

“사진 좀 빌려주세요”

우리 교회 지난 5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개최된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좀더 알찬 내용의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역사적인 교회 사진을 찾고 있다. 사진은 복사한 후 원본을 돌려 받게 된다. 의미있는 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문의: 김명현 목사, 정동호 집사).

“다니엘기도 하고 계신가요?”

'96 비전2000운동 기간 중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모든 성도가 어디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다니엘기도. 지난 주일 이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카드를 배포한 바있다. 매일 다니엘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은 결과를 이 기도카드에 표시하면 된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시된 기도카드를 승전감사의 날 제출하는 성도에게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다.

▼ '96 비전2000운동 금요기도회 주력교구 및 부서

날자	교구	남선교회·여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10월 11일	(당회)	모세 한나	새가족부·소망부	가브리엘
18일	1·2교구	요한	대학부·청년부	할렐루야
25일	3·4교구	에스터	사랑부·장년부	임마누엘
11월 1일	5·6교구	바울	(권사회)	호산나
8일	7·8교구	마리아	탁아부·유치부	시온
15일	9·10교구	베드로	유년부·초등부	베들레헴
22일	11·12교구	루디아	중등부·고등부	(스테반회)

'96 비전2000운동 기도제목

-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전할 기회, 담대함, 지혜를 주옵소서.
-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옵소서.
- 옳은 양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다락방 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우리 교회와 농어촌 자매교회,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10월 학습·세례식

10월 학습·세례식을 16일(수) I·II부 예배 시에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4일(월) 오후 7시에, 문답은 15일(화) 오후 7시에 각각 4층에서 한다. 문의는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 목회자·교우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연세대기독교동문회 초대회장에 피선되었다. 지난 8일(화) 연세대 알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연세대학교 동문 기독교인회 회원들은 이종운 목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임하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현재 연세대 총동문 목회자회(연목회) 대표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이 목사는 이날 참석한 김병수 연대 총장에게 연목회 회원들이 소속된 교회들이 모은 연세사랑캠페인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 * 이종운 목사는 15일(화) 성애성구사 주최 목회자세미나에서 ‘성례전에 대한 성경신학적 이해’라는 제한의 특강을 한다. 또한 18일(금)엔 한기총발전위원회를 주관한다.
- * 권영복 집사(9교구)는 경안노회 산하에 있는 농촌교회를 섬기기 위해 18일(금)에 부임한다. 권 집사는 안동성서학원을 졸업하였다.
- *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복음주의 신학기관인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석좌교수제 설치기금으로 미화 10만 달러 상당을 회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 성도는 복음주의 신학이 전세계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지명헌금을 바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 달 웨스트민스터 총장 로간 박사 내한 시 이를 전달하였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우리 교회 이종운 목사를 비롯, 황성수 박윤선 한태동 한철하 손봉호 김명혁 전 호진 박형용 정규남 김의환 등 수많은 신학자와 영향력있는 목회자들을 배출한 명문교이다.

■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⑦ 10월 21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복음과 상황 (김지철 박사)
- ⑧ 10월 28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예배의식과 교회력(H. 알렌 박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비전2000운동을 위하여
-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 진학과 취업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우리나라의 안보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룰 수 있도록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